

**공공임대주택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
입주민 수요 설문조사
보고서**

2019. 6.

CONTENTS

목 차

공공임대주택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입주민 수요 설문조사

1. 조사 개요	3
2. 조사 결과 요약	4
3. 항목별 조사 결과	5
별첨. 설문지	

1. 조사 개요

1) 조사 배경 및 목적

-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노후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및 생활 SOC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- 복합개발 방안 수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인을 대상으로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입주인의 수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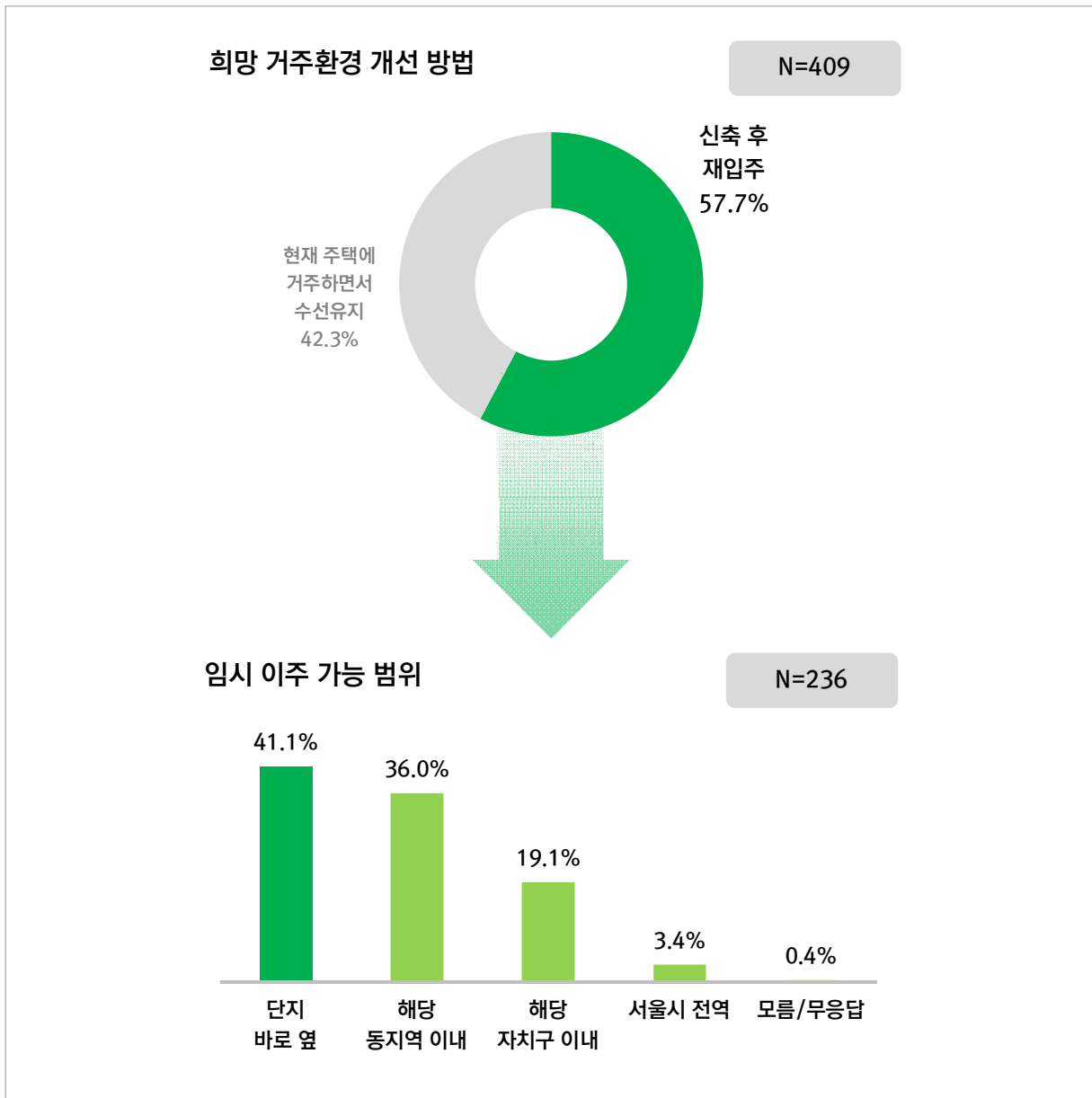
2) 조사 설계

구분	내용
모집단	현재 하계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613세대
표집 단위	조사 대상 가구 내 가구주 또는 성인 가구원 중 1인
표집 방식	전수조사
표본 크기	409명
조사 방법	PI(Personal Interview) : 가구 방문을 통한 개별 대면면접조사
조사 기간	2019년 5월 31일 ~ 6월 3일
조사 기관	(주)한국리서치

2. 조사 결과 요약

- 희망하는 거주환경 개선 방법으로 ‘신축 후 재입주’를 응답한 비율은 57.7%이며, ‘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선유지’라는 응답 비율은 42.3%임.
- 신축 후 재입주를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임시 이주 시 이주할 수 있는 범위를 질문한 결과, ‘단지 바로 옆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.1%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‘해당 동지역 이내(36.0%)’, ‘해당 자치구 이내(19.1%)’, ‘서울시 전역(3.4%)’ 등의 순임.

〈그림1〉 희망 거주환경 개선 방법 및 임시 이주 가능 범위



3. 항목별 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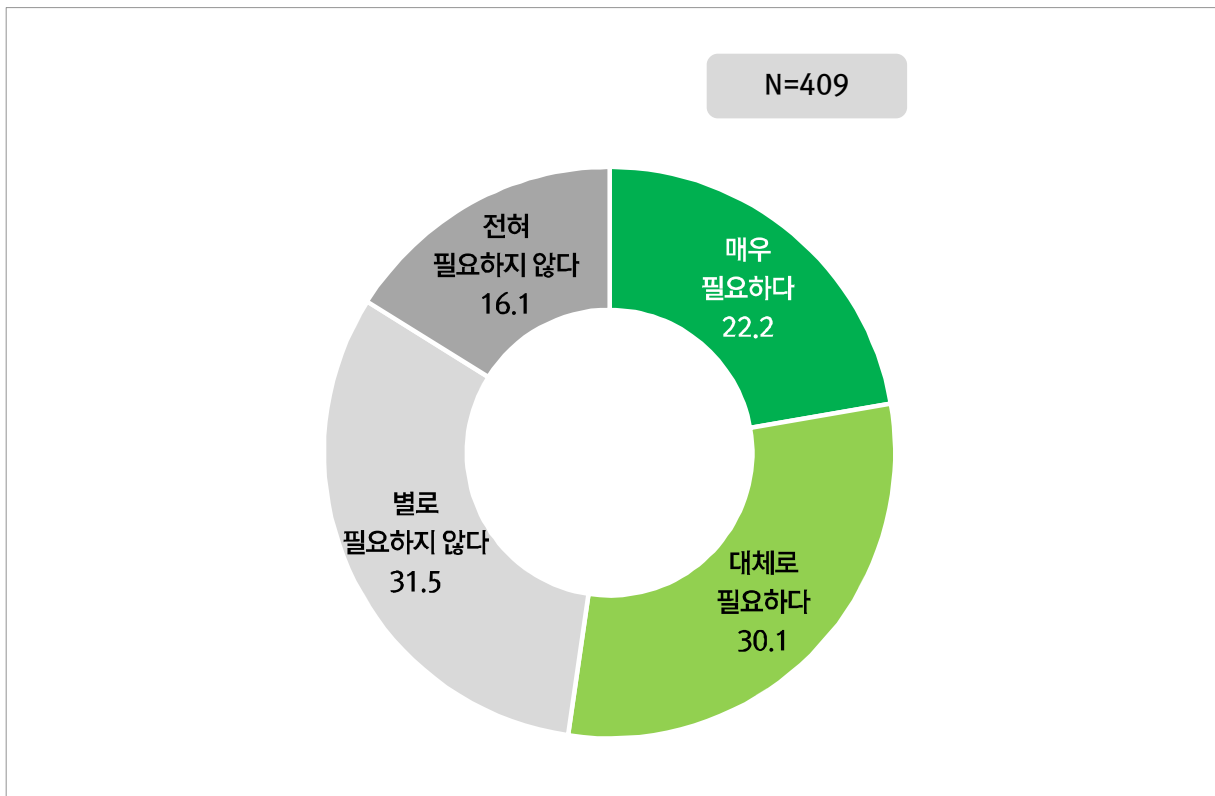
1) 거주환경 개선 필요 여부

1. 귀하께서는 현재의 거주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,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현재 거주환경에 개선이 ‘필요하다(매우 필요하다+대체로 필요하다)’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2.3%이며, ‘필요하지 않다(전혀 필요하지 않다+별로 필요하지 않다)’는 응답은 47.7%임.

〈그림2〉 거주환경 개선 필요 여부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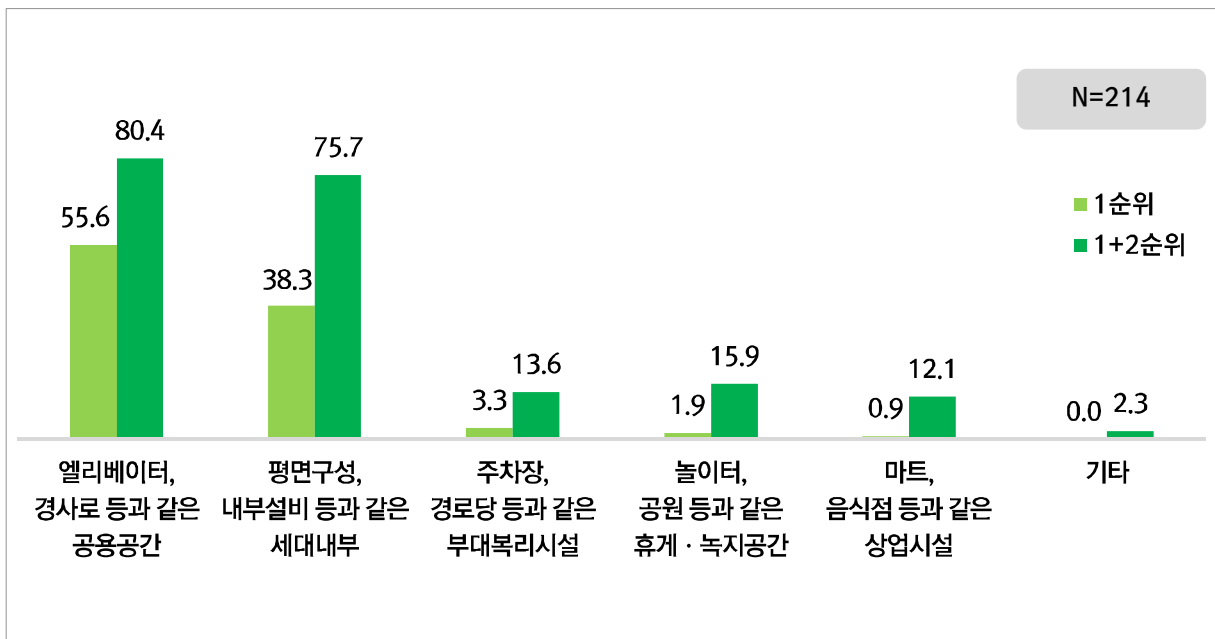
2) 개선이 필요한 공간

1-1. (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) 개선이 필요한 공간은 무엇입니까?

- 거주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질문한 결과, 1순위로는 ‘엘리베이터, 경사로 등과 같은 공용공간’을 응답한 비율이 55.6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‘평면구성, 내부설비 등과 같은 세대내부(38.3%)’, ‘주차장, 경로당 등과 같은 부대복리시설(3.3%)’, ‘놀이터, 공원 등과 같은 휴게·녹지공간(1.9%)’, ‘마트,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(0.9%)’ 등의 순임.
- 2순위까지 확장할 경우에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‘엘리베이터, 경사로 등과 같은 공용공간’이라는 응답 비율이 80.4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는 ‘평면구성, 내부설비 등과 같은 세대내부(75.7%)’, ‘놀이터, 공원 등과 같은 휴게·녹지공간(15.9%)’, ‘주차장, 경로당 등과 같은 부대복리시설(13.6%)’, ‘마트,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(12.1%)’ 등의 순임.

〈그림3〉 개선이 필요한 공간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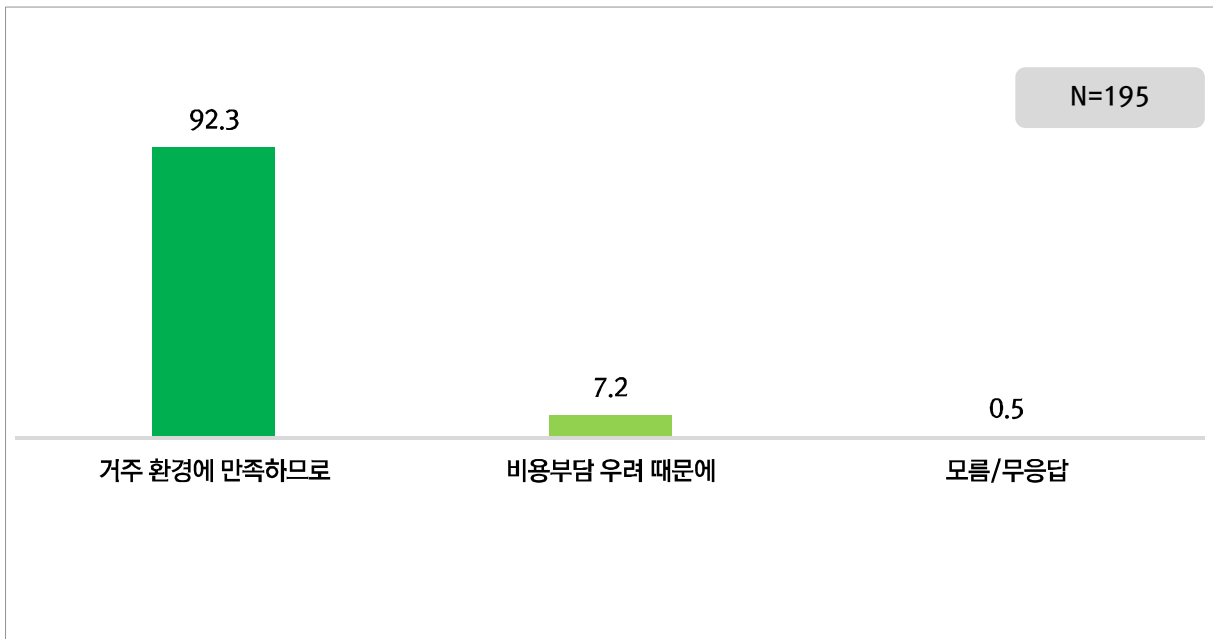
3) 개선 불필요 사유

1-2. (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)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, ‘거주환경에 만족하므로’라고 응답한 비율이 92.3%로 가장 높고, ‘비용부담 우려 때문에’라는 응답 비율은 7.2%임.

〈그림4〉 개선 불필요 사유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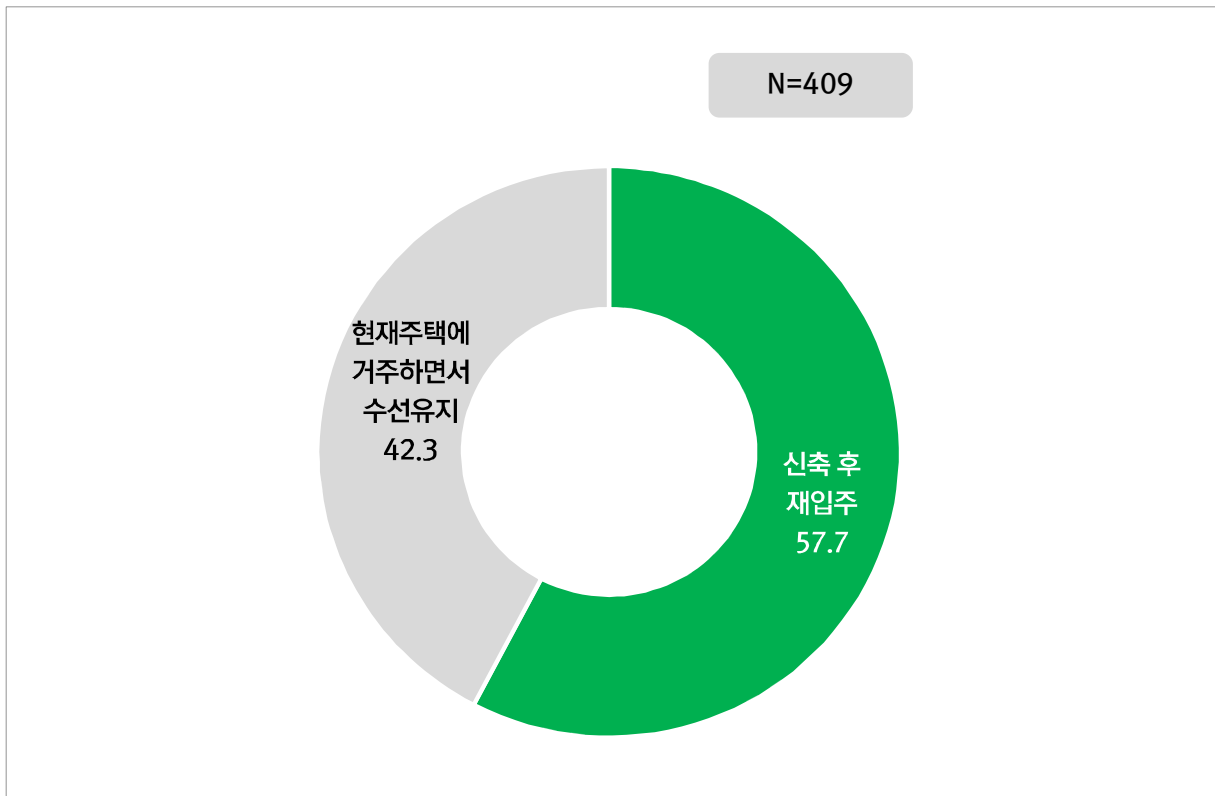
4) 희망 거주환경 개선 방법

2.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장 원하시는 유형은 무엇입니까?

- 희망하는 거주환경 개선 방법으로 '신축 후 재입주'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7.7%이며, '현재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선유지'라는 응답 비율은 42.3%임.

〈그림5〉 희망 거주환경 개선 방법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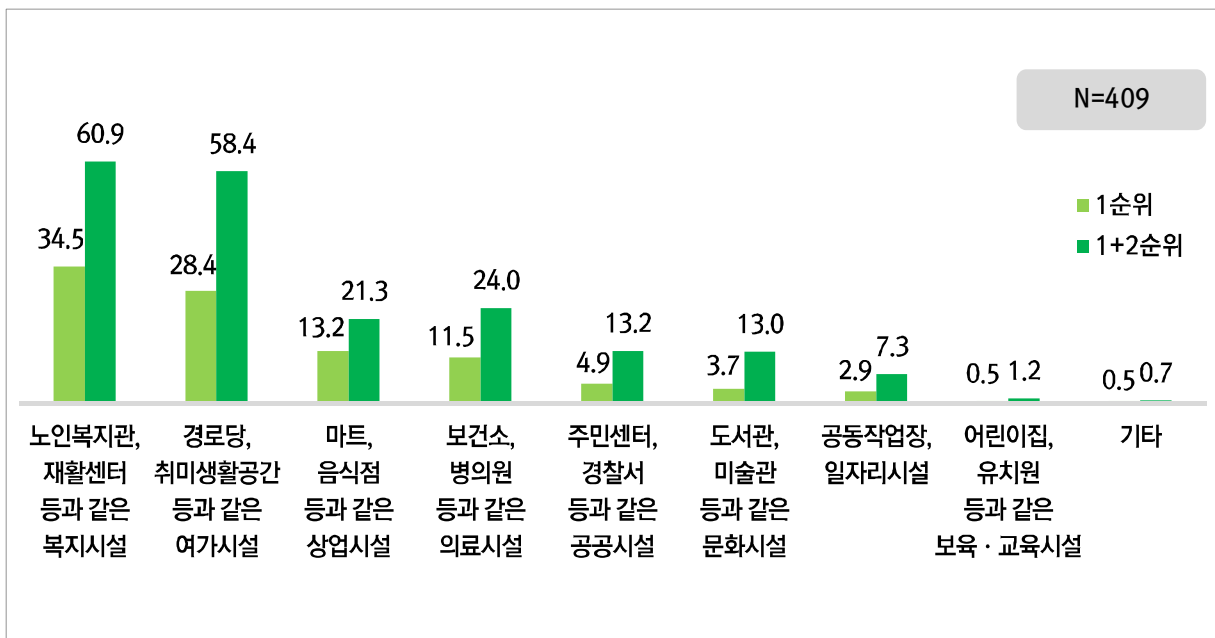
5) 필요한 생활편의시설

2-1.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불편하거나, 앞으로 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생활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?

- 불편하거나 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활편의시설 1순위로는 ‘노인복지관, 재활센터 등과 같은 복지시설’을 응답한 비율이 34.5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‘경로당, 취미생활공간 등과 같은 여가시설(28.4%)’, ‘마트,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(13.2%)’, ‘보건소, 병원 등과 같은 의료시설(11.5%)’ 등의 순임.
- 2순위까지 확장할 경우에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‘노인복지관, 재활센터 등과 같은 복지시설’이라는 응답 비율이 60.9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‘경로당, 취미생활공간 등과 같은 여가시설(58.4%)’, ‘보건소, 병원 등과 같은 의료시설(24.0%)’, ‘마트,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(21.3%)’ 등의 순임.

〈그림6〉 필요한 생활편의시설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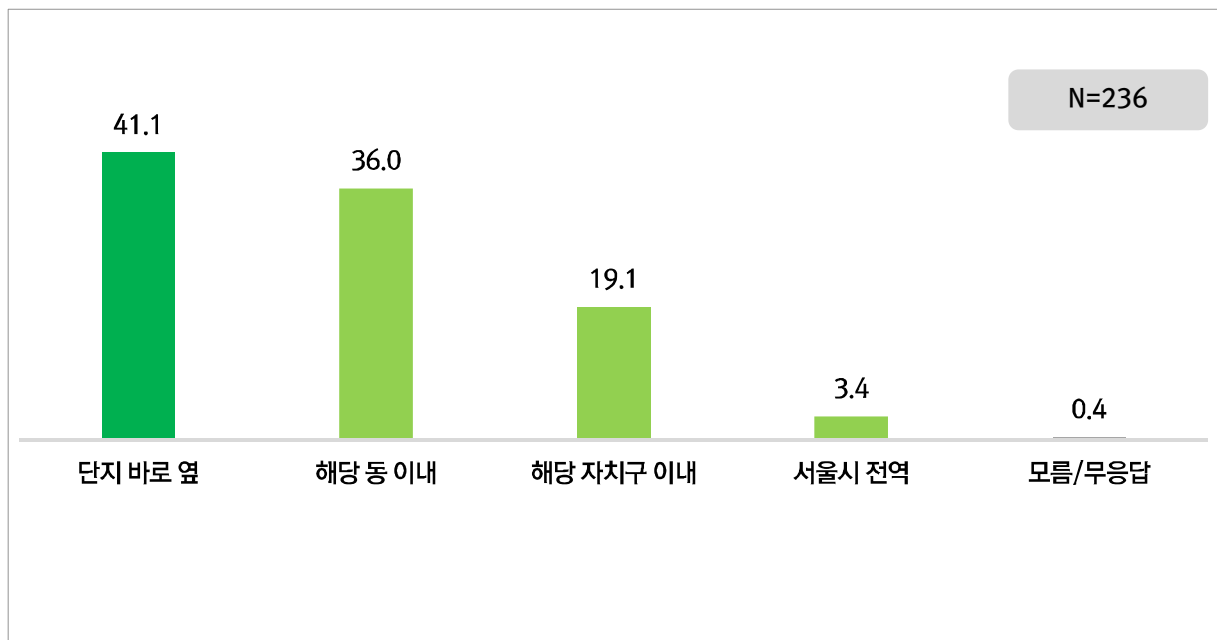
6) 임시 이주 가능 범위

2-2. 임시이주를 해야 한다면 가능하신 이주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?

- 거주환경 개선 방법으로 신축 후 재입주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임시 이주 시 가능한 이주 범위를 묻은 결과, ‘단지 바로 옆’이라는 응답 비율이 41.1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‘해당 동 이내(36.0%)’, ‘해당 자치구 이내(19.1%)’, ‘서울시 전역(3.4%)’ 등의 순임.

〈그림7〉 임시 이주 가능 범위

(단위 : %)



7) 수선이 시급한 부분

2-3. (현재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선유지를 원하시는 경우) 가장 시급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희망하는 거주환경 개선 방법으로 현재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선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수선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, ‘도배, 장판 등 마감재’ 응답 비율은 23.1%, ‘전등, 콘센트 등 전기설비’ 응답 비율은 6.4%임.
- 기타 응답 세부 내용으로는 ‘싱크대’, ‘문 또는 창문’, ‘베란다’ 등이 있음.

〈그림8〉 수선이 시급한 부분

(단위 : %)

